

IFS 국가 정책 제언 경제적 번영을 위한 개방적 네트워크 국가 전략

연구책임자

손인주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공동연구원

김종학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김형진 객원연구원(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김홍철 객원연구원(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박제근 교수(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박훈 교수(서울대 역사학부)

설지인 객원 연구원(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송치웅 박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현주 교수(연세대 행정학과)

최창용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 소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는 세계질서의 재편을 연구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디자인하려고 한다. 강대국 간 경쟁을 분석하고 한국의 중장기 외교·안보·통상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현재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는 △한국의 비전과 정체성: 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 △ 외교·안보: 동심원적 다자주의 전략 △ 통상·산업: 다중 바깥살 전략 △ 대중 문화 플랫폼 육성 △해양 및 우주안보 전략 △글로벌 과학기술 전략 등 을 주제로 다학제적 연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여론 수렴과 정책 결정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의 연구 결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공개될 예정이다.

목차

서언	04
요약	06
사업의 배경과 목표	010
I. 사업의 배경	010
II. 사업의 목표	010
2차년도 사업성과	011
I. 현실 진단과 평가	012
II. 연구 결과	013
III. 정책 제안	015
IV. 정책 반영 성과	018
V. 행사 및 소통	021
향후연구계획	023
I. 3차년도 연구계획	023
첨부	026
1. 논문	026
2. 발표문	026
3. 기사	026
4. 웹사이트	027
5. 포스터와 사진	027
6. 동영상	038

서언

우리는 세계질서라는 큰 판을 읽고 새로운 판을 제시하는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한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주변국에서 세계의 중심국으로 부상하였다. 한국은 자국의 증대된 위상과 국력에 걸맞은 선도적 국가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전과 달리 미·중(美·中) 패권경쟁을 비롯한 다양한 지정경(地政經) 리스크에 직면한 국제사회는 한국의 선택과 입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해법은 세계인들이 참고하고자 하는 모델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은 세계적 위상에 부합하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질 때가 되었다.

한국은 과거 식민지를 거쳐, 약소국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한 최초의 나라이다. 개항 이후 약 150년 동안의 고투와 도약은 전 세계에 영감을 주었다. 한국은 세계 8위의 수출 대국이고 ‘글로벌 파이어 파워(Global Fire Power)’라는 군사력 지표에서는 2024년 5위로 상승했다. 또한 한국은 배터리·바이오·반도체 등 차세대 3대 산업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나라이다. 방위산업 뿐만 아니라 한류로 대표되는 소프트파워도 막강해졌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한국을 전통 강대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신흥 강대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지난 20여 년 사이에 빠르게 증대된 국력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략적 비전, 경험, 의지가 부족하다. 한편, 한국도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국내외 난제와 도전 요인들에 직면하고 있다. 대내 적으로 심각한 정치·이념 갈등, 경제성장률 저하, 인구감소가 나타나고 있고, 대외적으로 미·중 대립으로 인한 경제적 안보적 위기 상황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새로운 역사적 갈림길에 섰다. 강대국 반열에서 다시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국가로 한발 더 도약할 것인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절박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소속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는 우리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며, 경제적 문화적 번영을 지속하기 위한 국가전략 보고서 작성, 실험적인 세미나 개설, 학계 및 전문가들 간 토론·대담회 등의 활동을 해왔다. 현실에 두 발을 단단히 딛고 넓

은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실질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가치와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그것이 도덕적 급진주의로 치달지 않도록 조화를 이뤄야 한다. 역사적으로, 성리학적 도덕과 명분에 과도하게 집착하며 세계질서 변화를 간과했던 구한말의 '위정척사(衛正斥邪)'이념은 도덕적 급진주의의 일례이다. 강대강 충돌이 일어나는 험난한 시대에는 '실용적 이상주의자(practical idealist)'의 역할이 중요하다. 비실용적 몽상가가 아니라, 학문적 도덕적 원칙을 기반으로 현실적 유연성을 지닌 지식인들의 공헌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미래 전략의 기초이다.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는 2차년도 기간 동안, 산업, 문화, 안보 3개 영역을 결합하여 새로운 통합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는 '개방성', '한국주도', '민간혁신'을 강조하며, 관련된 정책 제언 그리고 소통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폐쇄적 민족주의' 국가 모델이 아니라 '개방적 네트워크' 국가를 지향한다. 초강대국인 미국·중국의 시각에서 그 주변에 위치한 한국이 아니라, 지구적 네트워크의 중심에 자리 잡은 한국의 입장에서 전략을 모색한다. 또한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연구·제조·물류·투자 생태계 건설에 초점을 두었다.

한국 주도 글로벌 산업·문화·안보 전략과 관련하여 한국의 장점들 중에 하나는 제국주의라는 역사적 부채가 없으며 인류사회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부 특정 강대국들이 주도할 때는 제국주의 침략이라는 집단적 기억 때문에 이해당사국들의 의심과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역사적 부채가 없다. 21세기 세계질서 재편에 기여하고 한국의 국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은 자국의 증대된 위상과 국력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통상 국가로서 한국은 자유주의적 세계질서의 수혜자였다. 이제 한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세계질서라는 공익과 자신의 이익이라는 사익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관점에서 국가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은 포괄적이며 계몽된 국가이익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것이 국제사회의 존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강대국의 태도이다. 미래 한국은 물심양면으로 강(強)하고, 사유와 포용의 그릇이 큰(大) 나라(國), 강대국(強大國)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차원의 국가 대전략이 필요하다. 요동치는 세계질서 속에서 끌려 다니지 말고, 새 판을 짜고 이끌어야 한다.

요약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는 분절된 지식과 영역을 넘어서, 전체성(wholeness)을 담은 통찰에 초점을 둔다. 즉 산업(富), 문화(文), 안보(武)의 상호작용과 융합효과에 주목한다. 부(富) 전략은 글로벌 혁신 지대와 생산 지대라는 경제 공간(space)의 확대와 연계를 추구한다. 이러한 산업 전략은 문화 융성과 국방력의 근원이다. 한편, 문(文) 전략은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산업과 문화사조 발전에 대한 기여를 강조한다. 보편성을 지닌 세계적 수준의 대중문화는 경제적 번영과 외교안보에 도움이 되는 소프트 파워를 제공한다. 또한 무(武) 전략은 개방적 혁신 산업 네트워크와 대중문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안보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둔다. 안보는 경제적·문화적 번영의 전제조건이면 서, 동시에 방위 산업 및 첨단기술을 통해 산업·문화 생태계의 발전에도 기여한다. 산업, 문화, 안보로 구성된 융합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 전략의 일환으로서 대내적 차원에서는 혁신지대론을, 대외적 차원에서는 ‘다중 바퀴살(Multiple Hub & Spoke)’ 생산 기지론을 제시한다. 세계적 기술 기업이 한국의 혁신지대에서 혁신적 산업을 일구어내고, 전 세계의 생산기지에서 혁신적 제품을 생산하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현하는 것이다. 다중 바퀴살 전략의 관점에서, 해외 현지 생산 기지가 하나의 허브가 되고 여기에서 다른 국가 및 지역으로 연계되는 민간 주도의 통상이 스포크(spoke)가 되는 것이다. 한국은 기획, 설계, 디자인, 마케팅, R&D가 이뤄지는 혁신지대가 되고, 글로벌 생산기지는 통상과 물류로 연계되어, 한국이라는 중심이 바퀴살처럼 세계 각 지역의 생산기지와 연결되는 것이다. 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으로서 한국이 경제 번영을 일구어내는 방식이다. 개방적 혁신지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한국은 헤드쿼터(head quarter)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중 바퀴살’ 생산기지론은 궁극적으로 경제 영역의 확보 전략이며 기존에 한국이 추진해 왔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넘어선 전략이다. 즉, FTA를 통해 선(border line)을 넘었다면 이제는 터(site)를 확보 하여 경제혁신을 위한 공간(space)을 확대하는 것이다. 민간 주도의 제조, 투자 및 R&D

가 연계되어 글로벌 거점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물류를 기반으로 통상으로 연계되는 형태가 수레바퀴의 중심축과 바퀴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각각의 글로벌 거점들을 연결하는 가장 중추적인 허브(hub)가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7 허브 플러스 4’ 구상을 제안하고자 한다. 7 허브의 중심축은 한국이 될 것이며 바퀴살 형태로 연계될 것이다.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라틴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동아프리카 및 동유럽에 각 허브를 선정하여 모두 7개의 허브를 거점화 하자는 것이다. 플러스(plus) 4는 미국, 중국, 러시아 및 일본이 된다. 각 글로벌 허브의 입지가 정해지면, 한국 정부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일종의 ‘포괄적 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산지대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은 글로벌 생산 지대라는 ‘일터’를 보조하는 ‘쉼터’, 즉 레저, 리조트, 엔터테인먼트 복합 문화 공간 조성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와 해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K-뷰티, K-음식 등의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경제와 외교 측면에서도 우리의 국익에 부합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목표는 한국의 혁신지대와 세계 각 지역의 생산기지를 연결하는 공급망의 안전에 맞춰져야 한다. 안보 정책 차원에서는 해상 물류를 보호하기 위한 해양 안보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 시대의 한국은 차별화된 콘텐츠 경쟁력을 기반으로 개방적 대중문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과거 로마가 개방성을 바탕으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대제국을 이루었고, 영국이 대양항해 기술과 상업적 혁신을 통해 해가 지지 않는 해상제국을 건설했던 전략적 통찰과 궤를 같이 한다. 개방적 플랫폼 전략을 통해 만사한통(萬事韓通: 모든 일은 한국으로 통한다)의 비전을 추구할 수 있다. 성공적인 대중예술 플랫폼 구축만이 세계 대중문화 산업 시장에서 한국을 더 이상 추종자가 아닌 선도자의 입지를 확립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한국이 지향해야 할 개방적 플랫폼은 다양한 콘텐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화 시기와 같은 룰메이커(rule-maker)로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개방성 있는 참여의 ‘장(場)’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

즉 제반 인프라 제공 과 신뢰성 있는 체계 구축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문화콘텐츠 시 장에서 정부가 주도성을 가지고 관련 프로젝트를 제안하거나, 금전적 지원에 대한 사후 감사를 실시한다면 오히려 창의성을 저해하고 완성도가 낮은 결과물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산업계는 온·오프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운영 전략 구축 및 실질적 콘텐츠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플랫폼 운영 관련 상세한 피드백 제시를 통해 플랫폼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문화 생태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구축된 다면, 이는 단지 한국의 경제적 성취뿐만이 아닌, 국제관계에서 한국의 협상력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소프트파워 전략은 한 차원 높은 국가 안보 및 산업경쟁력 확보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우리의 대중문화 전략은 한국의 보편주의적 성향을 담고 있다. 한국인의 심성 저변에는 유교든, 불교든, 기독교든 세계적인 것을 향한 열정과 지향이 존재한다. 우리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도 보편 문명에 기반하여 한반도를 뛰어넘어 세계를 이끌 수 있다. 한국의 지향점은 민족적 독자성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세계 수준의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것이다. 고품격 문화의 수준이 확보되지 않은 민족적 특수성은 오히려 우리를 열등한 상태로 빠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 주도 글로벌 대중문화 플랫폼을 통해, 한국은 새로운 문화사조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우리는 세계인들과 함께 경제적 문화적 번영을 이룩하고, 이러한 번영을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 속에서 공유해 갈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이 외부 세계를 받아들임으로써, 외 부 세계로 끊임없이 확장되어 가는 국가의 미래상을 반영한다.

한편, 해상교통로의 안전은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적 문화적 번영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글로벌 혁신·생산 네트워크와 온·오프라인 대중문화 생태계를 한국 중심(헤드쿼터)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보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미 동맹에 기반한 한국 지상군 전력의 북한의 위협에 대 한 안전장치라면, 해군력은 한국의 글로벌 산업 네트워크의 안전을 담보하는 수단이 된다. 안보적 위협으로 인해 한국의 해상 물류가 차질을 빚을 경우 한국의 경제적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상교통로의 안전이라는 공공재에 무임승차를 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재는 미국의 군사력에 기반해 유지되어왔다. 문제는 미국의 패권에 의해 유지되어 왔던 해상교통로의 안전이 중국의 해양력 확대로 위협 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중국

은 서해 공해상에서의 해군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면서 한국에 직접적인 해상 위협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해양 안보에서 이전과 달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의 해양 안보 전략은 양자적, 다자적 협력을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즉 서로가 서로의 세를 빌리는 차세(借勢) 전략이다. 먼저 양자적 차원에서 한국은 미국의 군사력에 기반했던 해양 안보 질서의 현상 유지를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의 2022년 인도-태평양 양 전략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위협에 대비하여 동맹 및 우방국, 역내 기구들의 집단능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한국은 그동안 대북 억지력에만 국한해왔던 군사 전력을 확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미국 해군 전력의 인도-태평양 지역 접근에 대한 군사적 지원, 미국 해군 함정 건조 및 정박·수리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해양 안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의 방위산업체 및 첨단 기술 기업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도 필요하다.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두 나라의 기술 혁신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이는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번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자적 차원에서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 무역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특히 해상교통로의 길목에 위치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한국은 기존 인도-태평양 안보 협력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해양 안보 협의체의 확대를 이끌어야 한다. 해양 교통로의 주요 길목(choke point)에 위치한 국가들과 합동 해상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거나 해양 안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인도-태평양 해역은 ‘열려있는 바다’에서, ‘경쟁하는 바다’로 전 환되고 있다. 한국은 ‘경쟁하는 바다’에 대응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공생하는 바다’로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한다.

사업의 배경과 목표

I 사업의 배경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 2차 배경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배경의 경우,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강화된 중국의 공세적인 대외정책, 남북 관계의 요동,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심화와 같은 국제정세를 고려하여, 한국의 대외정책이 갖추어야 할 비전, 전략, 전술을 정교화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와 클러스터 내부의 자각이 있었다. 더 나아가, 단기적 차원에서의 정책 수요를 넘어서,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정체성과 비전에 대한 새로운 담론과 전략을 제시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II 사업의 목표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는 2년차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클러스터를 운영해 나아갔다. 주기적인 회의 개최 및 보고서 기반의 프로젝트 운영을 통하여,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는 통합성과 일관성을 갖출 수 있는 핵심 가치와 비전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집단지성을 통해 합의된 핵심 가치와 비전을 기반으로, 각 영역별 심화·발전된 전략을 수립하고 개별 보고서 작성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의 구체화 및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그리고 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학부 및 대학원생과의 소통 및 토론, 학계 및 대중과의 소통, 해외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과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2차 연도 사업성과

I 현실 진단과 평가

1. 2023년 2학기부터 2024년 1학기 학기 중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 연구원들과 함께 ‘격주 점심 도시락 비공개 회의’를 개최

2차 연도에 진행된 현실 진단과 평가 관련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3년 2학기부터 2024년 1학기 학기 중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 연구원들과 함께 ‘격주 점심 도시락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2023년 2학기의 경우, 참석자는 손인주 교수, 김종학 교수, 박제근 교수, 박훈 교수, 최창용 교수, 정현주 교수, 송치웅 박사, 김홍철 연구원, 김형진 연구원, 이재준 연구원, 설지인 연구원 및 학내외 전문가들이다. 회의는 총 7회 개최되었고, 회의가 개최된 날짜는 9월 1일, 9월 22일, 10월 6일, 10월 20일, 11월 3일, 11월 17일, 12월 8일이었다. 또한, 2023년 겨울학기 중에는 2차 보고서 작성 및 2주년 행사 준비를 위하여, 4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구체적인 회의 방식, 장소, 날짜는 다음과 같다. 대면회의의 경우 서울대학교 사회대 및 우석경제관에서 2월 1일 그리고 2월 26일 개최되었다. 그리고 사당역 파스텔시티 “올리브에비뉴”에서 2월 16일 대면 회의가 개최되었다. 비대면 회의의 경우, 줌(Zoom) 미팅을 통하여 2월 6일 개최되었다.

2024년 1학기 격주 점심 도시락 비공개 회의를 총 5회 개최하였다. 회의가 개최된 장소와 날짜는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에서 4월 2일, 4월 16일, 4월 30일, 5월 14일에 개최되었다. 그리고 신촌 민스키친에서 6월 7일에 외부 대면 회의가 개최되었다. 2024년 1학기에는 클러스터의 다학제적인 성격을 강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공의 학내 인사들을 추가 초청하였다. 해당 추가 인원은 김규현 전 국정원장 및 국가미래전략원 책임연구원, 김정은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 송지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나경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동환 서울대 화학부 교수, 최장욱 서울대 화학생명공학부 교수 등이다.

2024년 1학기 격주 점심 도시락 비공개 회의에서는 클러스터 연구원들의 개별 보고서 관련 발표 및 피드백이 이뤄졌고, 세부적인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4월 2일에는 김홍철 연구원의 ‘한국형 우주안보의 정의 적용범주 및 능력발전방향’, 4월 16일에는 박제근 교수의 ‘대한민국 대학과 과학기술 대혁신’, 4월 30일에는 박훈 교수의 ‘근대사서사와 ‘일본 문제’: 한국시민의 정체성’, 5월 14일에는 김종학 교수의 ‘한국 민족주의의 고독: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6월 7일에는 최창용 교수와 정현주 교수의 ‘국제개발협력 대한 정책제안’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2. 2023년 2학기 “글로벌 한국” 공동 세미나 개설 및 진행

둘째, 2023년 2학기에는 “글로벌 한국” 공동 세미나 수업을 개설 및 진행하였다. 공동 세미나 수업의 목적 의식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 연구진이 공유한 문제의식으로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세계 질서가 요동치는 상황 속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이는 곧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까지 내다보며 한국이 그려나가야 할 청사진 및 실천전략을 토론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수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험적 다학제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융합적, 실용적 그리고 성찰적 성격을 담은 연구를 미래세대들과 공유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장기 한국의 비전과 전략을 미래세대들과 함께 구상하고자 한 것이다. 수업 진행의 형식은,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군사학, 물리학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학계 연구자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경제·과학기술·문화예술 분야 실무자들(외교부, 기획재정부, 국군 고위 인사 포함)이 수업에 동참하였다.

수업 진행은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진행되었다. 9월 1일 세미나 소개를 시작으로, 9월 8일에는 김형진 연구원과 손인주 교수가 미국 외교를, 9월 15일에는 정승균 제독과 이재준 박사가 미중 해양력 경쟁과 한국의 해양 안보 전략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9월 22일에는 김형진 연구원과 손인주 교수가 중국 외교, 10월 6일에는 전봉근 교수와 김종학 교수가 한국외교사와 지정학, 10월 13일에는 박훈 교수가 한일관계사를, 10월 20일에는 김홍철 연구원과 정현주 연구원이 우주전략을 논의하였다. 10월 27일에는 최창용 교수와 박진 교수가 혁신생태계와 정부혁신, 11월 3일에는 이용욱 교수와 김용범 전 차관이 경제안보, 11월 10일에는 박제근 교수와 송치웅 연구원이 과학기술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11월 17일에는 송치웅 박사와 손인주교수가 물류 금융, 11월 24일에는 정지혜 박사가 K-문화를, 12월 1일에는 설

지인 연구원과 이규호 국장이 개발 금융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학기 말(12월 8일)에는 서울대 학부 및 대학원생 정책보고서 발표가 진행되었다. 정책 보고서 발표의 경우, K-문화의 발전과 미래 : 분야와 지역을 아우르는 유기적 문화 연결망 형성을 위해, '우주'항공 시대, 발전국가 한국의 변모,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초국가적 도전들, 대한민국 행정구역 재편과 지방자치분권 강화, 컨조인트 설문실험을 통한 한국의 공공원조 전략 연구, '세계 속의 한국'을 위한 중등교육 개혁: 제2외국어와 세계사 교육, 그리고 해외 수학여행, 다영역 전장 시대 - 한국의 우주전략, 한국 정권별 (2002~2022) 중국의 대북인식 변화: 중국의 대북 정책 보도자료 기반으로, 한국사회 물류금융의 혁신을 위한 규제 제언, 국가미래 전략으로서의 K-Culture 등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이뤄졌다. 한 학기 동안의 내용을 종합하고 수업에 참여하였던 교수, 외부 전문가, 학부 및 대학원생이 구체적인 전략을 토의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II 연구 결과

1. “강대국 외교 구상 - 한국 주도 동심원 전략” 보고서 발간

첫째, 2023년 9월 7일 “강대국 외교 구상 - 한국 주도 동심원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다년 연구과제의 첫 번째 연차 보고서로, 국익의 관점에서 한반도와 세계 질서의 변화를 선도하는 비전과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가 제시한 ‘한국의 대전략’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 모델, 근대사 내려티브 전개, 글로벌 산업·과학 혁신 허브, 물류·금융 네트워크, 해양 안보 전략, 동심원 외교 전략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인류 공동체의 미래 비전 구상과 한국의 중장기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강대국으로 부상을 기반으로, 국력 상승이라는 물질적 요소와 정체성이라는 정신적 성숙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했으며, ‘만사한통(萬事韓通: 모든 일 이 한국으로 통한다)’의 비전을 실현하고, 국익을 확장하는 길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2. “경제 번영을 위한 신강대국 전략: 산업, 문화, 안보의 융합” 정책 아젠다 발표

둘째, 2024년 3월에는 전략원 개원 2주년 행사에서 “경제 번영을 위한 신강대국 전략: 산업, 문화, 안보의 융합”이라는 이름의 후속 정책 아젠다를 발표하였다. 2023년 9월 7일 발표된 “강대국 외교 구상 - 한국 주도 동심원 전략” 보고서를 심화 및 발전시켰으며, 산업, 문화, 안보(해양) 영역에 대한 정책 제안을 도모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정체성 논의를 제기하고, 역사 내러티브를 통한 정체성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산업전략의 경우, 기존의 금융과 물류의 결합이라는 논의를 발전시켜 혁신지대와 생산기지 전략이라는 심화된 정책 제언을 하였다. 문화전략의 경우, 개방적 대중문화 플랫폼 육성 전략을 제시하여 국가와 산업계의 역량을 조화롭게 결합시킬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하였다. 안보 전략의 경우, 번영 네트워크의 안보적 위험 관리 정책을 제시해, 대한민국의 안보가 ‘경제 및 문화적인 번영’이라는 목표와 더욱 조응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경제번영을 위한 강대국 전략” 클러스터 2년차 후속 보고서 발간 예정

셋째, 2024년 6월에는 “경제번영을 위한 강대국 전략”라는 이름의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 2년차 후속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해당 보고서는 개원 2주년 행사에서 발표한 “경제 번영을 위한 신강대국 전략: 산업, 문화, 안보의 융합” 보고서를 발전 및 심화한 내용을 담는다. 무엇보다, ‘개방성’ ‘한국주도’ ‘민간혁신’을 강조하며, 새로운 통합적 비전을 제시한다. 거시적 전략의 체계화를 통한 보다 통일된 비전 아래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략과 전술을 제시한다. 또한, 정체성, 산업, 문화, 안보(해양 그리고 우주)로 영역을 다원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정책적 필요성과 수요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최근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있는 한국의 우주정책 수요와 치밀한 설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우주 안보 영역을 추가 및 통합한다.

4. 국제 위기 여론 서베이 (Crisis and Public Opinion survey) 진행

넷째,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위기 상황을 연구하는 8개국 대학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다국적 학술 연구 그룹과 함께 국제 위기 여론 서베이 (Crisis and Public Opinion survey) 진행하였다. 국제 위기에서 국내 정치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지역 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가상의 국제 위기 시나리오에 기반한 짧은 온라인 시뮬레

이선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서베이는 9월부터 12월까지 5-10 분 가량이 소요되는 온라인 기반 서베이 실험 방법론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해당 서베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인도, 대만, 영국 등 9개 국가의 엘리트들의 위기 시나리오에 대한 811개의 서베이 응답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현재 연구결과물로 학술 논문을 작성 중에 있으며, 2024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국제 학술 회의에 참가하여 해당 논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계획 중에 있다.

III 정책 제안

1. 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 모델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도모하였다. 첫째, 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 모델을 제시하였다. 개방적 네트워크 국가 전략은 자유를 확대하면서, 세계 각 지역에서는 무역과 통상을 통해 번영을 축적한다. 개방적 네트워크는 통상을 통한 국익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를 위해 대외정책에서 통상의 자유 혹은 해양의 자유를 강조한다. 폐쇄적 민족주의 국가전략은 민족주의를 동원해 중앙집권적인 전체주의 국가를 만드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 동원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는 국가를 전쟁의 소용돌이 안으로 휩쓸리게 한다. 따라서 국력 소진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서 개방적 네트워크 전략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입각해 통상의 자유를 통해 경제적, 문화적 번영을 이룩하고, 이러한 번영을 다른 국가와 협력 속에서 공유해 나아가야 한다.

2. 역사 내러티브를 통한 정체성의 모색

둘째, 역사 내러티브를 통한 정체성의 모색을 주장한다. 새로운 한국의 정체성은 중화사상 혹은 반봉건·반외세 동학농민운동·반일 독립운동·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연결되는 내러티브를 극복하고, 해방 후 한국의 경이적 발전을 설명할 수 있는 개방적인 내러티브여야 한다. 무엇보다, 해당 대목에서 제헌헌법의 가치에 대한 재고찰이 요구된다. 민중사관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제시한 제헌헌법의 가치는 간과되었다. 헌법 제정은 구한말 갑오개혁과 만민공동회 이래 뜻있는 한국인들 의 염원이었고, 1919년 임시정부가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은 부분적이거나 그 열망을 실현했다. 이런 점에서 1948년 독립국가의 헌법 제정이 지닌 역사적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그 내용의 우수성뿐 아니라

이를 통해 한국인 들 스스로가 헌정을 전개할 반석을 마련했으며, 3·1운동의 공화정 지향의 꿈 이 실현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대한민국 건국 헌법의 제정 과정에는 국가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귀중한 담론이 담겨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와 토론을 통해 이뤄졌으며, 매우 민주적이었고, 자주적이었다. 한국은 이러한 제헌 과정을 통해 자유, 민주,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건국 헌법의 정신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방향인 ‘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이라는 정체성과 궤를 같이한다.

3. ‘다중 바퀴살(Multiple Hub & Spoke)’ 생산기지론

셋째, 산업 전략의 일환으로서 대내적 차원에서는 혁신지대론을, 대외적 차원에서는 ‘다중 바퀴살(Multiple Hub & Spoke)’ 생산기지론을 제시한다. 세계 적 기술 기업이 한국의 혁신지대에서 혁신적 산업을 일구어내고, 전 세계의 생산기지에서 혁신적 제품을 생산하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현하는 것이다. 다중 바퀴살 전략의 관점에서, 해외 현지 생산 기지가 하나의 허브가 되고 여기에서 다른 국가 및 지역으로 연계되는 민간 주도의 통상이 스포크(spoke)가 되는 것이다. 한국은 기획, 설계, 디자인, 마케팅, R&D가 이뤄지는 혁신지대가 되고, 글로벌 생산기지는 통상과 물류로 연계되어, 한국이라는 중심이 바퀴살처럼 세계 각 지역의 생산기지들과 연결되는 것이다. 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으로서 한국이 경제 번영을 일구어내는 방식이다. 개방적 혁신지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한국은 헤드쿼터(head quarter)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4. 개방적 대중문화 플랫폼

넷째, 문화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 시대의 한국은 차별화된 콘텐츠 경쟁력 을 기반으로 개방적 대중문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개방적 플랫폼 전략을 통해 만사한통(萬事韓 通:모든 일은 한국으로 통한다)의 비전을 추구할 수 있다. 성공적인 대중예술 플랫폼 구축만이 세계 대중문화 산업 시장에서 한국을 더 이상 추종자가 아닌 선도자의 입지를 확립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한국이 지향해야 할 개방적 플랫폼은 다양한 콘텐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 하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화 시기와 같은 룰메이커(rule-maker)로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개방성 있는 참여의 ‘장(場)’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 즉 제반 인프라 제공 과 신뢰성 있는 체계 구축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편, 산업계는 온·오프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운영 전략 구축 및 실질적 콘텐츠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플랫폼 운영 관련 상세한 피드

백 제시를 통해 플랫폼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문화 생태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구축된다면, 이는 단지 한국의 경제적 성취뿐만이 아닌, 국제관계에서 한국의 협상력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소프트파워 전략은 한 차원 높은 국가 안보 및 산업경쟁력 확보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5. 양자적, 다자적 협력을 통한 해양 안보 전략

다섯째, 한국은 양자적, 다자적 협력을 통한 해양 안보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해상교통로의 안전은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적 문화적 번영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글로벌 혁신·생산 네트워크와 온·오프라인 대중문화 생태계를 한국 중심(헤드쿼터)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보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미 동맹에 기반한 한국 지상군 전력의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전장치라면, 해군력은 한국의 글로벌 산업 네트워크의 안전을 담보하는 수단이 된다. 안보적 위협으로 인해 한국의 해상 물류가 차질을 빚을 경우 한국의 경제적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양자적 차원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의 군사력에 기반했던 해양 안보 질서의 현상 유지를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다자적 차원에서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 무역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특히 해상교통로의 길목에 위치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한국은 기존 인도-태평양 안보 협력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해양 안보 협의체의 확대를 이끌어야 한다. 해양 교통로의 주요 길목(choke point)에 위치한 국가들과 합동 해상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거나 해양 안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6. ‘동심원적 다자주의’ 전략

여섯째, ‘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이라는 새로운 한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외교 분야에서는 ‘동심원적 다자주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 전략은 국익 관점에서 물질적 국력(또는 이익)의 중요성과 비물질적 정체성의 수렴성을 함께 고려한다. 또한 상대적 중요성과 수렴성에 바탕을 둔 유연하고 차등적인 외교 방식으로, 양자, 삼자, 소다자, 다자 외교 옵션들을 모두 사용하면서도 특정 나라에 상대적 가중치를 부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국력의 중요성과 정체성의 수렴성이 가장 높은 핵심 동심원에 자리 잡은 미국과는 삼자·소다자·다자 외교를 하면서도 긴밀한 ‘양자’ 외교에 중점을 둘 수 있다. 다음 동심원에 위치한 유럽연합, 일본과는 양자·소다자·다자 외교를 하면서 한·미·유럽연합 및 한·미·일 ‘삼자’ 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다음 외곽 동심원이나 경계선에 있는

중국, 인도, 일부 동남아 국가들과는 여러 외교 옵션을 사용하면서 ‘소다자’ 플랫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중국 등 규모가 큰 국가를 상대할 때는 1대1 양자 협상과 더불어 아세안과의 협력, 미국·일본 등과의 협력을 배후에 두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도 있다.

한국의 국익 관점에서 국력의 중요성과 정체성의 수렴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동,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의 경우에도 ‘다자’ 외교를 활용한 소통과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 동심원 전략은 강대국 외교의 신중함을 반영한다. 강대국으로서 무분별한 개입이나 무원칙적인 방관, 무행동은 국익에 치명적 손실을 준다. 국익의 관점에서 물질적 국력(또는 이익)의 중요성과 비물질적 정체성의 수렴성이 매우 높은 이슈에는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포괄적 개입과 관여를 모색해야 한다. 반면, 국력의 중요성과 정체성의 수렴성이 매우 낮은 이슈에는 거리두기 전략이 바람직하다. 국력의 중요성과 정체성의 수렴성이 다소 모호하거나 상충될 경우에는 비군사적 수단들(예: 경제 원조나 제재, 외교적 조치, 과학기술 협력 등)을 명민하게 혼합한 선택적 관여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주요 국가들의 정체성과 국력의 변화에 따라, 한국의 동심원적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다른 국가들의 위치가 변동될 가능성도 유념해야 한다. 긴 시간 앞에 영원한 것은 없다. 미국과 중국의 정체성과 국력도 변할 수 있다. 이 관계에서 한국은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현실적 변화에 대응한 유연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도덕적 가치와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그것이 정치적 급진주의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제하는 ‘실용적 이상주의자’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성리학적 도덕과 명분에 집착한 구한말 ‘위정척사’ 사상이 정치적 급진주의의 일레이다. 위정척사파는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성리학 근본주의 시각에서 서양을 금수로 간주했으며 조선의 개항과 통상을 반대했다.

IV 정책 반영 성과

1. ‘한일 교토 국제회의’에 참석

2023년 10월 일본 교토에서 진행된 ‘한일 교토 국제회의’에 참석하였다. 미중 관계 및 동유럽에 관한 일본의 유수 대학(와세다 대학교, 교토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등)과의 공동 회의를 전개하였다.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개방적 네트워크 전략을 소개 및 설명하고, 이에 대

한 일본 학계 내 엘리트들과의 토의를 진행하였다. 더 나아가, 한국의 개방적인 네트워크 전략 속에서 동아시아의 민주선진 강대국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갖는 중대한 함의를 논하고, 어떻게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불안정해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안정화하고 역내 국가들 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조화로운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China and The World Program 20th Annual Conference' 참가

2024년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손인주 클러스터 책임연구원은 미국 보스턴 하버드 대학에서 개최된 'China and The World Program 20th Annual Conference: Rethinking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에 초대되어 해당 행사에 참석하였다. “Measuring China’s ‘influence’ in international affairs” 세션에 유일한 한국 학자로서 참가하여 국제정세 속 한중관계에 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해당 세션에서 손인주 클러스터 책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 및 평가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념적 그리고 규범적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기존의 방법론, 한국 내 중국의 영향력 지표에 대한 기존 연구 및 방법론 평가, 한국 지방정부 간 중국 영향력 수준 평가 방법, 사례, 유형, 가설 및 향후 연구 주제 등을 발표하였다. 2024년 3월 23일에는 비공개 회의 및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하여 중국 영향력의 시도와 효과를 주제로 하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3. 워싱턴 스티븐 연구소, 허드슨 연구소, 국방연구원, 레이건 연구소, 조지워싱턴 대학과 회의, 발표 및 인터뷰 진행

2024년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미국 워싱턴에서 워싱턴 스티븐 연구소, 허드슨 연구소, 국방연구원, 레이건 연구소, 조지워싱턴 대학과 비공개 회의 발표 및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ROK’s Maritime Security Strategy in an Age of US-China Competition”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는데, 해당 내용은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 연차 보고서 일부 내용으로 국가미래전략원의 연구 성과를 국제적인 청중에게 소개 및 설명하고자 하였다. 해당 발표, 회의, 인터뷰를 통하여 국가미래전략원의 연구 클러스터와 미국 싱크탱크와 예정된 연구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향후 일정을 구체화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해당 기관들과 협력하여

향후 진행될 ‘미중 관계와 한국 대중 전략 TF 구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4. 강대국 담론의 형성

정책 반영 성과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한국 사회 내 강대국 담론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은 자기 정체성 인식의 측면에 있어서 주변국 의식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는 약소국 혹은 중견국이 아닌 ‘강대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국력과 정체성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가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의 레거시 미디어 뿐만 아니라 뉴미디어인 3Pro TV 유튜브 채널에 참여하여서 강대국 한국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소통을 강화시켜 정책 반영도를 높였다.

5. 한국주도와 개방성

둘째, 한국주도와 개방성이라는 가치를 정책의 본질적인 중추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기존 정책 담론은 한국이 강대국이 주도하는 대외정책에 ‘편승’하는 수동적인 패러다임 내에 머물러 있었다면,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는 한국이 주도하는 개방성 정책들을 내어 놓음으로써 정책 결정자 그리고 입안자들이 한국의 성장한 국력에 기반하여서 능동적으로 국익을 추구해 나아가게 하는 정책적 관점의 전환을 달성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계 내에서도 한국이 자신의 장점과 강점에 기반하여서 한국의 정체성을 모색해 나아가는 시도와 흐름을 강화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6. 민간과 지방 행위자의 역할론 확대

셋째, 민간과 지방 행위자가 핵심 행위자로 작용하여 여러 산업들의 영향력이 융합되는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정책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기존 정책 담론에서 혁신의 핵심적인 행위자로 인식되지 못한 민간과 지방 행위자의 역량을 재인식하고 이들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정책적 틀 내로 포섭시킬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본래 금융과 물류는 별개의 산업 영역으로 논의되었지만 두 영역에 내재되어 있는 연계성을 포착하여 정책 제언을 이뤄내고, 이를 실질적인 현실 정책 속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V 행사 및 소통

1. 대외 매체와 소통 강화

2차 연도에 진행된 행사 및 소통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3년에는 “강대국 외교 구상 - 한국 주도 동심원 전략” 보고서를 중심으로 대외 행사 및 소통을 이뤄 나가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첫째, 대외 매체와의 소통을 진행하였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 TV조선, 3Pro TV 등에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 보고서를 보도하고, 연구원이 매체 인터뷰에 참석하여서 보고서 관련 내용을 외부 대중에게 소개 및 설명하였다. (1) “강대국 외교 구상 - 한국 주도 동심원 전략” 보고서에 대한 소개를 2023년 9월 7일 조선비즈니스 그리고 2023년 9월 19일 한경비즈니스를 통해, 각각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韓 미래 정체성은, 초일류 네트워크 강대국” 그리고 “G2 편승 없이 개방형 통상 국가로 초일류 강대국 발돋움 해야”[왜 워싱턴인가⑥]”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하여 대중에게 소개하였다. (2) 중앙일보를 통하여 “신홍 강대국 부상한 한국…세계질서 재편·관리 기여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기고하여, 한국의 신홍 강대국으로서의 문제 및 목표의식을 외부에 소개 및 설명하고자 하였다. (3) 뉴미디어 매체로서 241만 명 구독자를 보유한 3Pro TV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국가미래전략원과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가 설정한 정책적인 메시지 전파의 파급력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강대국 도약과 중진국 함정, 기로에 선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2023년 12월 9일자 영상에 출연하여, 한국 주도 동심원 전략을 소개하였다.

2. 대만 대선 현지 조사

둘째, 2024년 1월 4일부터 7일(4박 5일)까지, 손인주 클러스터 책임연구원은 2024년 1월 제16대 대만 정부총통 선거(2024년 1월 13일)에 대한 현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대만 현지의 학계 전문가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루예중(盧業中) 국립정치대학 교수, 라이룬야오(賴潤瑤) 중앙연구원 박사 등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양안 전략대화에 깊이 관여했던 루예중 국립정치대학 교수에 따르면 2019년 무렵부터 중국 본토에서 온건파의 목소리가 거의 사라졌다고 했다. 라이룬야오(賴潤瑤) 중앙연구원 박사는 중국에서 ‘자기기인(自欺欺人·자신을 기만하고 남도 속임)’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국 관료와 전문가들이 최고 지도자의 뜻을 무조건 따라가는 ‘과잉 충성 리스크’를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대만 현지 조사의 결과로 2024년 1월 16일자 중앙일보의 ‘오피니언: 손인주의 퍼스펙티브’ 기획명 아래 ‘높아진 대만해협 파도…한국이 양안 평화 중재자 될 수도’라는 이름의 사설을 기고하였다.

3. ‘시리즈 대담회’ 개최

셋째, 2024년 1학기에는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가 개최하는 ‘시리즈 대담회’를 개최하였다.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교수 및 전문가를 연속적으로 초청하여 공개 대담회를 개최함으로써, 클러스터 학술적인 다양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시리즈 대담회 각각의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년 3월 5일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 223동 504호에서 Columbia University의 Thomas J. Christensen 교수를 초청하여, “미중관계와 대만문제”를 주제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24년 3월 19일에는 미국 랜드(RAND) 연구소 정치학 부서의 회원이자 독립 연구자 및 작가인 오공단(Kongdan Oh) 박사를 초청하여, “중국의 역사 공작과 글로벌 미디어 통제”를 주제로 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어, 2024년 4월 30일에는 서울대 역사학부의 구범진 교수를 초청하여, “영락제의 베트남 침공과 조선의 對明 외교”를 주제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마지막으로, 2024년 5월 22일에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소속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와 행정대학원이 공동 주최하여 유엔 Human Development Report “Breaking the gridlock: reimagining cooperation in a polarized world”의 총괄 책임자인 Pedro Conceição 유엔개발 프로그램 인간개발보고서국 국장(Director, 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 UNDP)을 초청하여 대담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지향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정책의 방향과 전략,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개발정책의 큰 흐름과 주제 및 쟁점들에 대해 조명 및 토의하였다.

향후 연구계획

I 3차 연도

1. 동아시아의 안보 및 군축 전략

3차 연구 계획은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구성될 것이다. 첫째, 동아시아의 안보 및 군축 전략이다. 미중관계 그리고 동아시아에 대한 국제적인 정세에 관한 분석은 주로 중국의 공세적인 대외정책과 국내정책 그리고 중국에 대한 군사적·전략적 균형 정책에 집중되고 있다. 한편 중국,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구적인 차원에서 (잠재적) 공동의 이익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공동의 이익은 각국 국민들의 사회적인 후생뿐만 아니라 지구 및 글로벌이라는 공동체의 후생과 연결되어 있다. 모든 국가들이 무한한 상호불신과 견제에 매몰되는 것은 모두에게 득이 되지 못하는 전쟁으로 귀결될 리스크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는 미중관계 그리고 중국과 주변국 관계 속에서 지나친 군비경쟁이 일어나는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군축 시나리오 및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군축 달성을 위해서, 핵심적인 이해당사자국, 제도적인 구비 요건 그리고 군축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당사국의 대내적인 정치·경제·사회 차원의 조건과 맥락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다층적인 차원에서 분석된 요인들에 따라 형성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들을 대비하고, 그 속에서 이해당사국과의 전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은 모색하고자 한다.

2. 미중관계와 한국의 전략

둘째, 미중관계와 한국의 전략이다. 2024년 11월 예정되어 있는 미국 대선 이후, 미중관계에 대한 한국의 평가, 관점 그리고 정책 제안을 미국의 차기정부에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4년 미국 대선은 미국 국내정치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출 선거로 평가받는다. 본래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간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선은 중요한 정치적인 이벤트로 인식되어 왔다. 게다가 최근 미중 전략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의 국제적인 요인이 ‘도미노 현상’과 같이 발생함에 따라, 초강대국 미국의 정책적 패러다임과 입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철수 발언으로 인하여 도널드 트럼프 당선 시 한미 동맹의 향방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한국의 국익 관점에서 미중관계의 안정적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3년차 연구 프로젝트에서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는 내부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미국에 소재한 우수 싱크탱크와 협업하여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 내용의 일부는 SBS방송국의 D-포럼행사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3. 중국(미국)주도 글로벌 공급망과 한국의 경제 안보

셋째, 중국(미국)주도 글로벌 공급망과 한국의 경제 안보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한다. 2년차 연구 기간 동안 추진하였던 혁신지대와 생산기지 전략 그리고 번영 네트워크의 안보적 위험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안보 전략을 보다 심화시키고자 한다. 오늘날 안보의 개념은 다양한 영역을 가로지르는 포괄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포괄적인 안보 인식 아래에서 다원화된 안보 대응 및 정책 설계의 필요성에 주목한다.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는 기존에 추진한 해양 및 우주 안보 연구뿐만 아니라, 경제 적 차원에서의 대두되는 ‘경제 안보’의 개념을 실질적 그리고 잠재적 위협에 맞추어 새롭게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 안보 개념에 입각하여서,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에서 추진해온 국가 정체성, 과학기술, 대중문화, 전통안보 등 영역과 결합하여서, ‘경제 안보+a’의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안보의 개념 아래에서 미중관계의 본질과 그것의 파장을 재고찰 하고, 그러한 분석이 한국에 대해 갖는 함의를 찾으려고 한다. 한국의 국익 관점에서, 미중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경제안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미국과 중국 내부의 관점에서 정의된 경제안보 담론이 아닌 한국의 경제안보 담론이 어떻게 자생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지, 우리의 지정학, 지경학 조건 내에서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지 조사를 기획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한 한국이 어떻게 오늘날 위험한 지정경 시대에서 명민한 외교로써 타국

과 협력함과 동시에, 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익을 수호해 나아가는 태도를 병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것이다.

첨부

1. 논문

국제 위기 여론 서베이 (Crisis and Public Opinion survey) (첨부1 참고)

2. 발표문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 2023년 연차보고서 『강대국 외교
구상-한국 주도 동심원 전략』 (첨부2 참고)

개원 2주년 발표문서 『경제 번영을 위한 신강대국 전략 : 산업,
문화, 안보의 융합』 (첨부3 참고)

2024년 연차보고서 『경제 번영을 위한 강대국 전략 : 산업, 문화,
안보의 융합』 (첨부4 참고)

3. 기사

손인주, "신흥 강대국 부상한 한국…세계질서 재편·관리 기여해야,"
중앙일보, 2024년 5월 14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9114#home>

손인주, 오피니언: 인주의 퍼스펙티브 높아진 대만해협 파도…한국
이 양안 평화 중재자 될 수도, 중앙일보, 2024년 1월 16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2152#home>

환경비즈니스, "'G2 편승 없이 개방형 통상 국가로 초일류 강대국
발돋움 해야'[왜 워싱턴인가⑥]," 2023년 9월 19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68315?sid=101>

한국경제, "'G2 틀 벗어나야 초일류 강대국 된다'," 2023년 9월
6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0692191>

조선일보,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韓 미래 정체성은, 초일류 네
트워크 강대국”, 2023년 9월 7일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9/07/O4DF26SH3FGK3J37H46G42USMQ/?outputType=amp

TV CHOSUN, "'한국은 주변국 아냐…약소국 정체성 때문에 편
승·균형외교 집착'," 2023년 6월 8일
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6/08/20230608

90035.html

중앙일보, "오피니언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주변국 아닌
중심국 된 지 오래...강대국 편승 외교 끝낼 때", 2023년 6월
7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8029#home>

4.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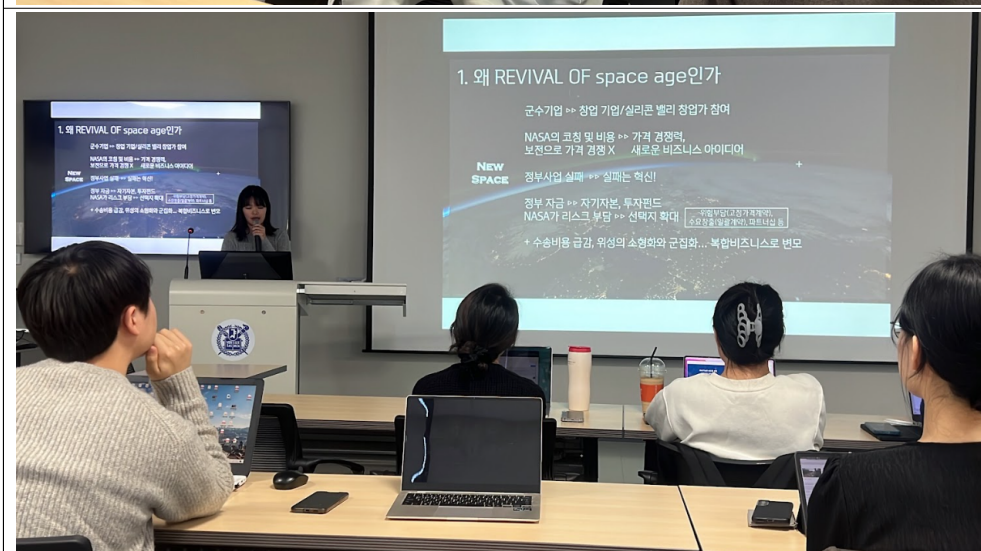
5. 포스터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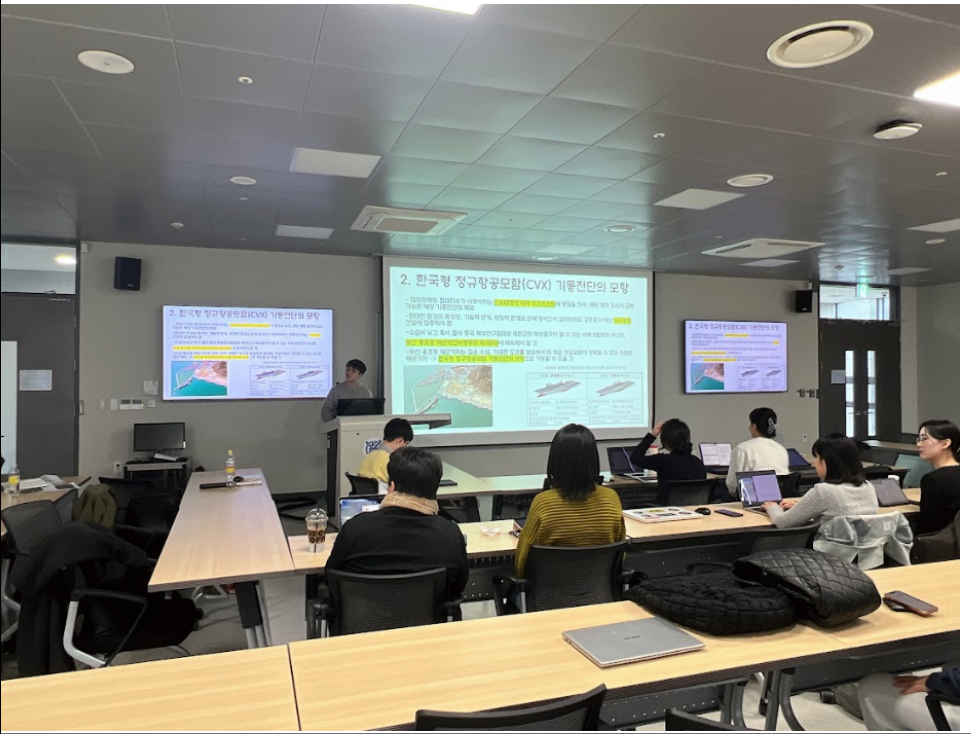
2023년 2학기 “글로벌 한국” 공동 세미나 수업 개설 및 진행











시리즈 대담회 포스터 및 사진

- 1) Columbia University의 Thomas J. Christensen 교수를 초청하여, "미중관계와 대만문제"를 주제로 대담·토론회

The poster is for a lecture series event titled "미중 관계와 대만문제" (U.S.-China Relations and Taiwan Issue). It features a portrait of Thomas J. Christensen, a professor at Columbia University. The text includes the event title, the speaker's name and affiliation, a brief biography, and event details such as date, time, loc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The poster is framed by a blue border and includes logos f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 대담·토론회
미중 관계와 대만문제

**Thomas J. Christensen (美컬럼비아 대학)**
사회 손인주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

Thomas J. Christensen is Professor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and Director of the China and the World Program at Columbia University. From 2006-2008 he served as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with responsibility for relations with China, Taiwan, and Mongolia. Professor Christensen has also taught at Cornell University, MIT and Princeton. He is a life member of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nd a Non-Resident Senior Scholar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일시 3월 5일 오후 4:00 - 5:00
장소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 504호
문의 jjiwan1107@snu.ac.kr

2) 오공단(Kongdan Oh) 박사 초청 “중국의 역사 공작과
글로벌 미디어 통제” 대담·토론회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 대담회

중국의 역사 공작과 글로벌 미디어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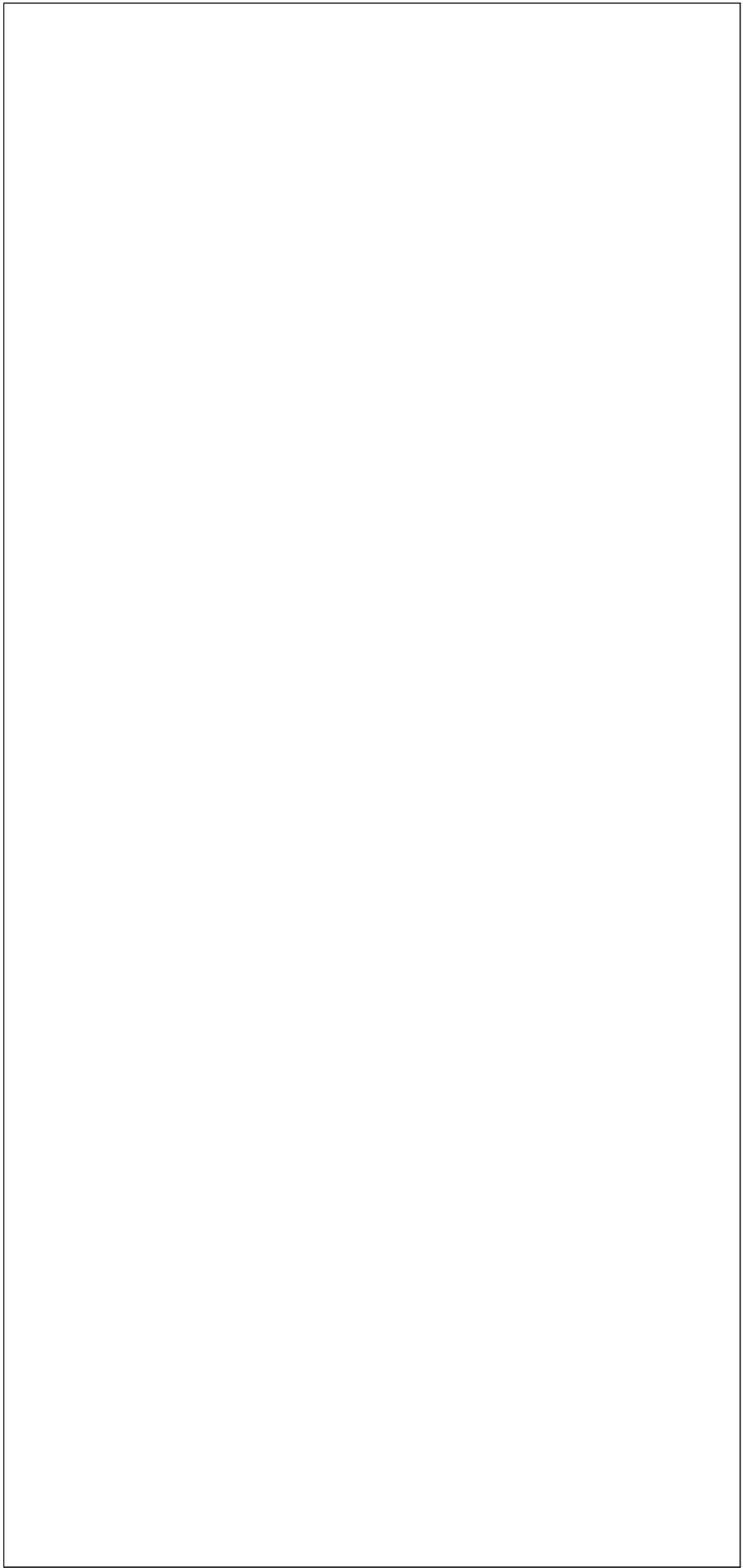
Dr. Kongdan (Katy) Oh
사회 손인주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

She was a Senior Asia Specialist at the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a Non-Resident Senior Fellow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and a member of the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of the RAND Corporation. She is a lifetime member of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serves on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and is the co-founder and former co-director of The Korea Club of Washington, D.C.

일시 3월 19일 오후 4:00 - 5:30

장소 법학전문대 17동 106호

문의 mhlbest@snu.ac.kr
※한국어로 강연 진행 예정



3) 서울대 역사학부의 구범진 교수 초청 “영락제의 베트남
침공과 조선의 對明 외교” 대담·토론회 개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 대담·토론회

영락제의 베트남 침공과 조선의 對明 외교

구범진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사회 손인주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일시

2024년 4월 30일 4:00PM ~ 5:30PM

장소

법학전문대 17동 10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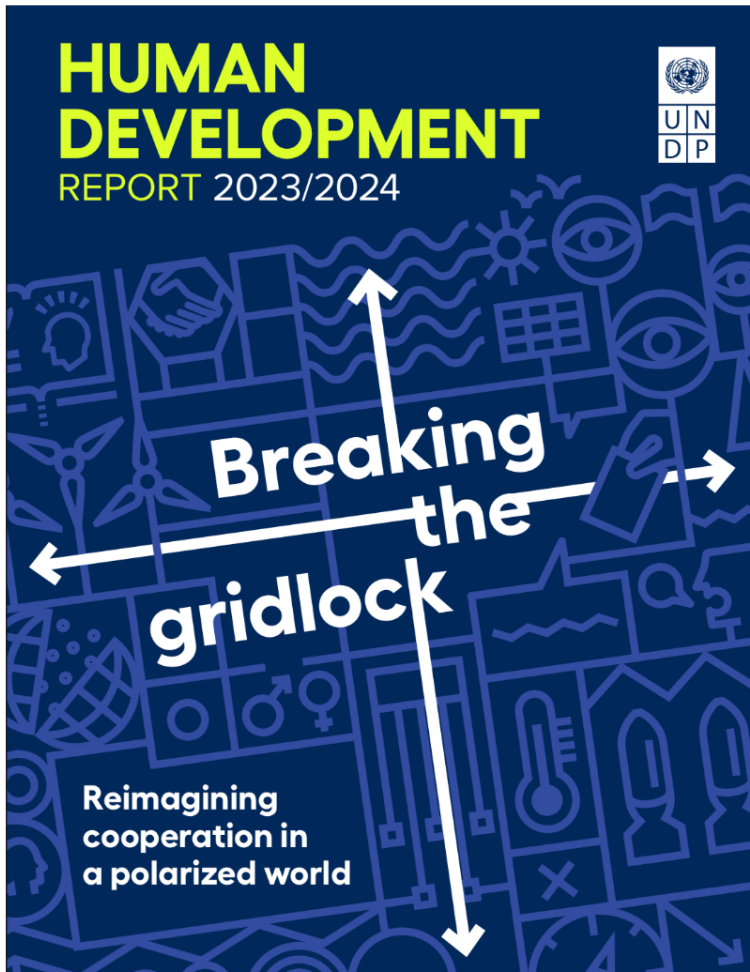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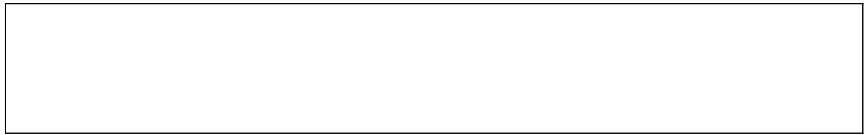
jiwan1107@snu.ac.kr

4) Pedro Conceição 유엔개발프로그램 인간개발보고서국
국장(Director, 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 UNDP)
초청 대담회

° 문의: 정지완 조교 (jiwan1107@snu.ac.kr)

감사합니다.





6. 동영상

유튜브 채널 3Pro TV 출연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si=em60cUxR5YTzjezA&v=bUTfAm_SKRU&feature=youtu.be